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을 위한 교회론적 의미의 탐구*

孫 元 曠

서울기독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을 위한 교회론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탄생된 지 약220 여년이 흐른 지금, 주일학교는 교회학교로, 또 주일교회학교로 그 명칭을 바꿔가면서 교회 내 개신교 종교교육기관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여왔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최근 학교형 패러다임의 위기를 겪으면서, 소위 ‘교육목회’라는 논의의 맥락에서 ‘교회형 패러다임’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교회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때, 어린이-청소년교회에 대한 교회론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있다. 첫째, 어린이-청소년교회를 세우기 위한 토대로써 성서적 교회론은 무엇인가? 둘째, 어린이-청소년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교회론의 이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선, 본문에서 어린이-청소년교회의 성서적 토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믿음·소망·사랑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성서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어린이-청소년교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근거하여 “하나요(one), 거룩하고(holy), 보편적이며(catholic), 사도적인(apostolic) 교회”를 지향하는 신학적으로 정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맥락에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해방적 교회, 에큐메니칼 교회, 영성적 교회, 그리고 성례전적 교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주일학교, 교회학교, 주일교회학교, 학교형 패러다임, 교회형 패러다임, 교육목회, 교회론, 어린이-청소년교회,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한국교회

* 이 논문은 서울기독대학교 2013년도 특별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머리말

지금까지 개신교 종교교육은 거의 대부분 소위 ‘주일학교’(Sunday school) 혹은 ‘교회 학교’(church school)로 불리우는 교회 내 신앙교육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 대학입시와 경쟁위주의 학교교육에 따른 종교교육의 희생, 주일학교 교사의 높은 이직율 및 직무만족도의 하락, 그리고 세속화된 학부모들의 종교적 무관심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주일학교 출석율이 하락되면서 주일학교의 위기는 이제 현실이 된지 오래되었다.¹⁾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주일학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어린이-청소년교회’라 말할 수 있다.²⁾ 여기서 어린이-청소년 교회란 주일학교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로 교육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이루어졌던 ‘학교교육식 패러다임’(schooling paradigm)의 종교교육을 극복하고, 그 대신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처럼 목회의 대상으로 삼아 신앙공동체이론에 기반을 둔 ‘교육목회 패러다임’(educational ministry paradigm)을 지향하는 기독교 어린이-청소년 교육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목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청소년교육은 소위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은 하나의 교회로서 ‘교회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어떠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전제 위에 세워져야할까? 그리고 그 교회론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교육목회에 임해야할까? 이러한 문제제기 위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연구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주일학교가 어린이-청소년교회로 변화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어린이-청소년교회를 세우기 위한 토

1) 주일학교의 위기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박상진, “한국 교회학교의 위기분석과 그 대책,” 『2004 “총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해” 교육지도자대회』(자료집, 2004.2.26); 김종준, “주일학교 교육의 진단”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회 제37차 학술세미나, 2004.5.24); 손원영,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39-246쪽; 강영택, 황병준, 김현숙, 박상진,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참조.

2)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을 위한 신학적 논의는 “교회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e in ecclesia)이론, 어린이-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laos tou theou)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평신도신학’, 그리고 초대교회의 통전적인 교회의 기능이론 등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손원영,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 29-37; 고원석·김도일·양금희·이규민·장신근·박상진·전영미,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2), 78-85쪽;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Knox Press, 1989); Robert W. Pazmino,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hristian Education: An Evange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1992); Craig Jutila, *Leadership Essentials for Children's Ministry: Passion, Attitude, Teamwork, Honor* (Loveland, CO: Group Publishing, Inc., 2001); R. Paul Stevens, *The Abolition of the Laity* (Cumbria, UK: Paternoster Press, 1999) 등 참조.

대로써 성서적 교회론은 무엇인가? 셋째, 어린이-청소년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교회론의 이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넷째,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II. 주일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교회로의 변화

1. 주일학교의 역사적 변화

주일학교(Sunday school)는 1780년경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교회 내외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교회학교(church school), 주일교회학교(Sunday church school)라는 이름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변화되어 왔다.³⁾ 우선 주일학교는 18세기 말 산업 혁명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가 한창이던 영국에서 소외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의 자선학교(charity school) 곧 사회교육적 성격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주일학교는 평신도인 레이크스(Robert Raikes)에 의해 교회 밖에서 노동이 없는 일요일에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바탕으로 3R(읽기, 쓰기, 셈하기) 중심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목욕과 세탁 등 어린이-청소년을 돌보는 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일학교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된 점, 평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교회 밖에서 운영된 점, 그리고 성경보다는 오히려 3R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초창기에는 영국 국교회(성공회)로부터 많은 오해와 어려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한 주일학교의 급속한 성장은 영국교회로 하여금 주일학교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영국교회와 웨슬리(John Wesley)의 감리교운동이 적극적으로 주일학교를 교회 안으로 흡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영국 주일학교를 일컬어 “사회교육적 성격”의 주일학교라고 부른다.

둘째, 교회학교(church school)는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교육적 성격의 주일학교와는 달리 미국을 중심으로 신앙교육 및 전도교육기관의 성격으로 발전된 학교를 의미한다. 사실 영국의 주일학교는 19세기 초 수많은 이민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한 동안 그곳에

3) 주일학교-교회학교-주일교회학교로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ack L. Seymour, *From Sunday School to Church School: Continuities in Protestant Church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860-1929* (Lanham, New York,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Robert W. Lynn & Elliot Wright, *The Big Little School: Two Hundreds Years of the Sunday School*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0); J. S. Brubacher,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1966), 『교육사: 교육문제변천사』, 이원호역(서울: 문음사, 1990), 406-409 참조.

서도 주일학교의 사회교육적 성격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주일학교는 소위 19세기 제2차 미국 대각성 신앙운동 및 서부개척시대의 선교적 열정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사회교육적 성격 대신 ‘신앙교육 및 전도교육기관’으로 그 성격이 점차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서부 개척자들이 개척한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주일학교를 세우고 전도운동에 열정을 쏟았던 것이다. 특히 1852년 호레스 만(Horace Mann) 등의 노력으로 미국에서 초등학교의 의무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더 이상 3R 중심의 주일학교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는 신앙교육 및 전도교육기관으로 그 성격을 굳히면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초 존 듀이(John Dewey)의 진보주의 교육과 알버트 코(Albert Coe)를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학회’(Religious Education Association)의 형성은 주일학교가 신앙교육에 전문성을 띤 신앙교육기관으로 정착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교육 학파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주일학교라는 용어대신 신앙교육적 성격의 주일학교를 일컬어 ‘교회학교’(church school)로 부르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도 주요교단(감리교, 장로교 통합, 성결교 등)을 중심으로, 주일학교가 신앙교육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음으로 주일학교라는 용어 대신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주일교회학교(Sunday church school)는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부터 또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비공식적으로 주일학교 개혁론자들 사이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 주일학교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다. 앞에서 암시하였던 것처럼, 미국의 경우 교회학교가 1960-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반문화운동과 세속화의 진척으로 인해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관에 대한 회의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말하자면 이러한 교회학교 위기의 현실에서 일군의 학자들이 대안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주일교회학교”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주일교회학교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된 것이다. 첫째는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교육적 성격으로서의 주일학교의 의미를 오랫동안 잃어버렸는데, 주일교회학교가 그 사회교육적 성격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사회교육적 성격의 회복을 통해 교회학교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이다. 둘째는 1960년대 유네스코에서 천명한 ‘평생교육’의 이념을 주일교회학교에 접합시켜 신앙교육도 더 철저화하자는 취지이다. 즉 과거 교회학교는 어린이-청소년중심의 신앙교육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신앙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신앙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회들은 주일학교 내에 영아부와 유치부, 그리고 장년부와 노년부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결국 주일교회학교는 잃어버렸던 사회교육적 성격의 영국식 주일학교의 회복과 동시에, 그 동안 수행하여 왔던 신앙교육을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려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외의 주요 교단들은 비록 법적으로 ‘주일교회학교’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de facto*) 대부분의 교회학교는 이러한 주일교회학교의 취지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약 220 여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지닌 주일학교는 사회교육적 성격, 신앙교육 및 전도교육적 성격, 그리고 사회교육적 성격과 평생신앙교육적 성격의 변증법적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하여 사회교육과 평생신앙교육의 통합을 시도했던 그 주일교회학교 역시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는 지난 20년 전 주일교회학교론자들이 겪었던 위기의식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 왜냐하면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상당수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교회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농어촌 교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신자의 부재로 인해 기본적으로 교회학교를 교회 내에 설치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신앙관에 회의감을 표출하면서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교회들이 위기를 겪게 되면서, 그에 따라 교회학교도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형교육 대신 신앙공동체이론을 중시하는 교육목회이론들이 교회학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고, 그 맥락에서 주일학교는 ‘어린이-청소년교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방향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2. 주일학교를 넘어 어린이-청소년교회으로: 교육목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일찍이 1970년대 초 미국에서 ‘학교형’ 교회학교의 위기를 겪으면서 넬슨(Ellis C. Nelson),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소위 신앙공동체이론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⁴⁾ 그리고 그 계보에 속한 학자들은 소위 ‘교육목회’(teaching ministry)라는 맥락에서 다양한 교회교육의 지형을 넓혀가면서 기독교교육의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비록 ‘어린이-청소년교회’⁵⁾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교육목회이론은 어린이-청소년교회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가톨릭에서는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과 해리스(Maria Harris)를 중심으로 교육목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감리교 전통의 메리 무어(Mary Elizabeth Moore)와 장로교 전통의 아스머(Richard Osmer)를 중심으로 교육목회론을 제시

4)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he 3rd Revised ed. (New York: Morehouse Publishing, 2012); C. Ellis Nelson, *Where Faith Begins*, 『신앙교육의 터전』, 박원호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참조.

5) 이 용어에 대한 사용은 국내의 경우, 김중준목사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모토로 “꽃동산교회”를 설립(1986)하여 어린이교회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어린이-청소년교회에 대한 교육목회적 이론을 토대로 어린이-청소년교회운동은 은준관교수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교회학교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2001, 2004년 감리교회를 모델로 하여 교육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김중준, 『나는 유년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었다』(서울: 규장, 2000), 118-119쪽; 은준관, “어린이교회 세우기란? 주일교회학교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며” (2001년 어린이교회 새로 세우기 운동 강의 중 발췌한 내용); 김도일,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교육 모델,”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 78ff.쪽 참조.

하고 있다.⁶⁾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은준관 교수와 필자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목회이론은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에 따라 비록 제 각각 특색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목회이론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신앙은 어떤 인위적인 학습에 의해서 가르쳐지기 보다는 오히려 신앙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또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교육목회이론가들은 대체적으로 학령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연령층의 아동들을 분류한 뒤 그들을 교육하는 소위 전통적인 학교형 수업의 신앙교육에 비판적인 입장에 서서, 간세대(inter-generation)가 함께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주일학교가 어린이-청소년교회로 변형되고자 할 때, 어린이-청소년교회는 ‘목회적 돌봄’이라는 시각 위에서 검토되는 것이다. 특히 그룹이 제시한 교육목회를 위한 교수-학습과정 이론인 “공유적 프락시스 접근”(shared praxis approach)은 단순히 교수-학습이론이라기보다는 교육목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오랫동안 각광을 받고 있다.⁷⁾

둘째, 교육목회론자들은 주일학교가 어린이-청소년교회로 그 정체성이 신앙공동체 지향적으로 변형될 때, 교회의 제 기능이 통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은준관의 『기독교교육현장론』(1988)과 해리스의 저서, *Fashion Me a People* (1989)에 보다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해리스는 그의 책에서 교회의 교육과정은 복음선포로서의 ‘케리그마’(Kerygma), 교육으로서의 ‘디다케’(Didache), 친교로서의 ‘코이노니아’(Koinonia), 봉사로서의 ‘디아코니아’(Diakonia), 그리고 예전으로서의 ‘레이투르기아’(Leiturgia)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들로서 신앙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통전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연구자도 이런 입장에 따라 주일교회학교가 어린이-청소년교회로 수정될 것을 촉구한 바 있다.⁸⁾

셋째, 어린이-청소년교회론자들 혹은 교육목회이론가들은 주일학교가 생기기 이전 기독교교육의 원형으로써 강조되었던 소위 ‘카테케시스’(catechesis) 혹은 ‘성례전(세례, 입교,

6) 교육목회와 관련한 이들의 대표적인 저서는 아래와 같다. Thomas H. Groome,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 Pastoral Ministry*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1); Mary E. Moore, *Education for Continuity and Change: A New Model for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Abingdon Press, 1983); Moore, *Covenant & Call: Mission of the Future Church* (Discipleship Resources, 2003);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Richard R. Osmer, *The Teaching Ministry of Congrega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참조.

7) 그룹의 공유적 프락시스 접근은 교육 뿐만 아니라 설교, 성례전교육, 그리고 목회적 돌봄에서 활용될 것을 제시하였다. Groome, *Sharing Faith*, 제2부 참조.

8) 손원영, “어린이교회로서의 주일교회학교,”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61-263쪽.

성만찬)교육’ 등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서 카테케시스란 새신자들로 하여금 세례 받고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준비교육 및 성만찬에 참여시키기 위한 기독교교육으로써 초대교회 때부터 수행되어온 전통적인 기독교교육의 형태를 말한다. 카테케시스에 대한 강조는 성례전(sacrament)을 중시하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에서 주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고, 개신교 전통에서는 입교교육의 맥락에서 루터와 칼빈 이후 계속하여 강조되어 왔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1972년 초대교회의 ‘가입의 성례전’을 재구성하여 RCIA(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를 새롭게 개발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게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가톨릭의 경우 그룹과 함레스(John W. Harmless)⁹⁾ 등이, 개신교의 경우 웨스터호프 및 아스머가 큰 관심을 갖고 각각 연구하고 있다.

끝으로 교육목회론자들은 주일학교 곧 어린이교회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매우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평신도란 단순히 성직자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안수받지 않은 수동적인 대상으로서 성인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직자와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laos tou theou)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평신도의 개념에 근거하여 기독교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¹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사와 학습자는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 곧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2:9)이다. 이러한 평신도신학 곧 하나님의 백성 신학에 근거하여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 내지 수직적 주종관계는 사라지고, 교사는 단지 “앞선 학습자”(leading learner)¹¹⁾로서 학습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작은 목회자”¹²⁾로서 이해된다. 즉 교사와 학습자는 상호인격적이고 호혜적인 맥락에서 공동의 신앙을 나누며 신앙공동체인 어린이-청소년교회에 책임적 신앙인으로서 함께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특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학습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학교형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오히려 교육목회의 차원에서 ‘교회 패러다임’(ecclesial paradigm)에 따라 교사와 학습자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성도(saints)로 이해된다.

9) John W. Harmless, “Augustine and Catechumenate: A Catechetic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Boston College, 1990) 참조.

10) R. Paul Stevens, *The Abolition of the Laity*, chap. 2.

11) Groome, *Sharing Faith*, pp. 449-450.

12)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191쪽.

Ⅲ. 어린이-청소년교회의 성서적 교회론

위에서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교회가 학교형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 교육목회의 관점에서 ‘교회형’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주일학교가 학교 패러다임을 넘어 교회패러다임으로 이해될 경우,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어떠한 교회론 위에 터를 잡고, 교육목회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즉, 어린이-청소년교회가 학교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서 교회(*ecclesia*)라면, 그 성서적 토대는 무엇인가? 여기서 어린이-청소년교회의 성서적 표상으로서 하지슨(Peter C. Hodgson)의 주장에 근거하여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¹³⁾

첫째, 어린이-청소년교회는 ‘하나님의 백성’(*laos tou theou*)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어린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사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막10:14-15)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던 것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지도자와는 달리 어린이-청소년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누구보다도 더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불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린이-청소년들도 존재론적으로 성인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어린이-청소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soma tou Christou*)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상은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으로써, 바울서신에 많이 등장한다.(엡1:22-23; 롬12:3-5 등) 에드워드 슈바이처(Edward Schweizer)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새로운 백성의 구성 곧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회적 연합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새로운 인간성을 수립하는 의미로써 우주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¹⁴⁾ 결국 어린이-청소년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표상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 가시적인 교회 속에 현존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달리말해 가시적 교회는 곧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13) Peter C. Hodgson, *Revisioning the Church: Ecclesial Freedom in the New Paradigm*, 박근원역, 『교회론의 새 지평』(서울: 진흥, 1996), 38-48쪽.

14) Edward Schweizer,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chaps. 2-4.

‘성만찬’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하였던 가톨릭교회에서 많이 강조되었으나, 교파적 이해를 넘어서 성서적 교회의 의미로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만찬으로부터 결코 배제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에클레시아로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믿음·소망·사랑의 교제’(*koinonia*)를 표상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교제, 곧 ‘코이노니아’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믿음·소망·사랑의 코이노니아이다.(고전 13:13) 이 세 가지 은사는 서로를 규정짓는다. 비록 그 중에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로 교회 전통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지만, 서로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관계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교의 근거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에 근거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는 신앙이 일어나는 모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신앙의 행위가 모여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성 안에서 비로소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표상으로서 ‘믿음·소망·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것은 곧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성 안에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교회론은 개신교를 시작한 마틴 루터에 의해 특히 발전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성도 간의 친교’(*communio sanctorum*)로써 이해되었던 것이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위한 조건으로써 믿음·소망·사랑 중에 ‘믿음’(예: *sola fide*)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성도 간의 ‘신앙의 친교’(*congregatio fidelium*)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었고,¹⁵⁾ 그것은 후에 개신교의 전통 속에서 중요한 교회의 의미로 오랫동안 강조되었다.

넷째, 에클레시아로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성령의 피조물’(creature of *pneuma*)을 의미한다. 여기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성령의 창조하시는 사역의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 성령은 인간 안에 내재하셔서 단지 인간의 주체성만을 움직이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양식이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라는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성령(*pneuma*)의 활동으로 창조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에베소서 2:12-22은 교회의 표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바울의 전통에서 있는 에베소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져있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분열이 극복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 ‘한 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로써 모든 적대적인 것들을 없애려는 것이다. 이 ‘한 몸’은 건축이라는 표상으로 묘사되며, 하나님의 한 성령이 이 건축의 과정에서 활동하신다. 결국 에클레시아

15) 참고로,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사랑의 친교’에 대한 주제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최근 ‘믿음·소망·사랑’ 중 소망에 대해 강조하면서 교회를 ‘소망의 친교’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변혁적 하나님의 나라’(transformative basileia)로 보려고 한다. Hodgson, 『교회론의 새 지평』, 44쪽.

로서의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즉 교회를 짓는 건축자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짓는 건축물은 ‘서로 원수 되어 갈리게 되었던 담’을 헐어버림으로써 세워지는 것이며, 그 결과 하나의 새로운 인간성(*hena kainon anthropon*)을 만들어낸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에클레시아로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믿음-소망-사랑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성서적 표상을 함축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들은 ‘하나님의 나라’(*basileia tou theou*)라는 보다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표상 속에 다시 하나로 묶일 수 있다. 이것은 최근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으로 이해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¹⁶⁾ 따라서 에클레시아로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끊임없이 거듭나게 된다.

IV. 어린이-청소년교회와 교회의 전통적 지표들

앞에서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교회를 위한 성서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의 성서적 의미들은 오랜 교회의 역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대신 세계 교회사를 통해 강조되었던 교회의 전통적 지표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공의회의 결과에 따라 설명되었다. 즉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기존의 니케아신조(the Nicene Creed, 325년)에 추가하여, 소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교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우리는 하나요(one), 거룩하고(holy), 보편적이며(catholic), 사도적인(apostolic) 교회를 믿는다.”¹⁷⁾ 이것은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가 교회의 표지로서 강조한 것이고, 종교개혁가들 역시 그 표지를 존중한 것으로써, 일치성(unity), 거룩성(holiness), 보편성(catholicity), 사도성(apostolicity)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이 교회의 정통성(orthodoxy)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 이러한 신학적 표지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지 성찰해 본다.¹⁸⁾

우선, ‘일치성’이란 사도바울의 언급처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문제는 가톨릭교회가 교회일치의 근거를 성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3세기 주교 키프리안(Cyprian) 이후 노바티안(Novatian) 등과 같은 이단에 대항하

16)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이형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20세기 주요 신학의 종말론적 교회론』(서울: 한들출판사, 2005) 참조.

17) 세계교회협의회회음, 『세계교회가 고백해야할 하나의 신앙고백』, 이형기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19-131쪽, 특히 121쪽 참조.

18) 손원영, 『테오프라시스 교회론』(서울: 동연출판사, 2011), 177-180쪽 참조.

는 과정에서 ‘주교’를 그 중심에 집중시켰던 점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 키프리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교가 교회에 속해 있으며 또한 교회가 주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주교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며 하나이고 단절되거나 나뉘 수 없으며 서로를 결합시켜주는 주교의 응집력에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있습니다.(Ep.68, 8)”¹⁹⁾

이처럼 가톨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주장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주교가 교회일치의 준거가 되었다. 이것은 교회일치의 시대에 상당한 도전과 반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키프리안 이후 역사적으로 큰 왜곡이 일치성의 준거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일치의 표준은 더 이상 주교와 같은 교회법적인 것 곧 감독제이든, 교황제이든, 혹은 장로제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제도적인 체계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더 근원적인 성서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e in ecclesia)인 어린이-청소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의 유기적인 일치성을 이루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교회들과 유기적으로 하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편성’이란 2세기 초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가 처음 언급한 것으로써, 그것은 지역의 감독교회에 대비되는 전체교회 혹은 완전한 교회를 의미한다. 희랍어 형용사인 ‘kataholikos’(holos에서 유래함: 전체의, 온전한, 완전한)는 이것의 적절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편성은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 내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의미로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다. 즉 ① 참되고 이교적이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은 정통이라는 의미(교리적 보편성), ② 온 세상의 확장이라는 의미(지리적 보편성), ③ 다른 교회보다도 많은 구성원들이 있다는 의미(숫자적 보편성), 그리고 ④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오래된 교회라는 의미(시간적 보편성)이다.²⁰⁾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의 개념을 완성한 이는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종종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한스 쿡은 ‘전체적’ 혹은 ‘우주적’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에큐메니칼’(ecumenical: 전세계적)이라는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²¹⁾ 결국 보편성은 가톨릭교회가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교리적 보편성, 공간적 보편성, 시간적 보편성, 그리고 숫자적 보편성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이

19) Eric G. Jay, *The Church: Its Changing Image through Twenty Centuries*, vol. 1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pp. 67-68.

20) Hans Küng, *Die Kirche* (1967), 정지련역, 『교회』(서울: 한들출판사, 2007), 427-430쪽.

21) 위의 책, 432쪽.

세상 전체를 지향해 가야한다는 측면에서의 교회의 내적 동일성이나 에큐메니칼이란 의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에큐메니칼’(ecumenical)의 희랍어의 어원인 ‘오이쿠메네’(oikoumene)가 ‘거주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태초에 온 인류가 함께 거주하도록 창조하신 아름다운 집 곧 아름다운 우주의 회복²²⁾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아름다운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센터로서 보편성의 지표를 새롭게 해석하는 가운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삶을 위한 보편적인 공동의 공간이 창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룩성’은 단순히 모든 교회가 그 자체로서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믿는 신앙 때문에 거룩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거룩성의 개념과 관련된 논쟁은 매우 심각하였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박해시대에 박해를 견딘 자와 중간에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한 자 사이의 구별의 문제로서 그 문제는 종종 교회 분열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엄격주의자들로 알려진 영지주의자, 노바투스주의자, 도나투스주의자, 몬타누스주의자 그리고 중세에는 순결과 운동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주장하면서, 소위 흠없고 순결한 거룩한 자들만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하며, 죄 있는 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은 결코 그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거룩성은 교회의 제도나 교회의 장소 혹은 시간 대신에,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기인한다.²³⁾ 따라서 교회는 흠 없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이전에 ‘죄인들의 공동체’(communio peccatorum)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존재로 불림을 받은 ‘성도들의 교제’(communio sanctorum)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경험적 교회를 단순히 거룩한 교회로 신성화할 수 없다. 오히려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요,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11:45; 벧전1:15-16)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주심을 받습니다.”(롬3:24)라는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부르시고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 곧 어린이-청소년교회의 거룩성은 어린이-청소년교회 그 자체의 거룩성에 기인함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대한 표상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겸손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청소년교회의 거룩성은 어린이-청소년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비신자를 차별하기 위한 준거로서의 거룩

22) 이형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20세기 주요 신학의 종말론적 교회론』, 70쪽.

23) Küng, 『교회』, 463-464쪽.

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맥락에서의 거룩성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도성’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부터 연유되었음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선포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즉 사도는 예수께서 위임하시고 파송하셨다는 것과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의 증인이었고,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자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도성에 대한 이해는 신약성서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사도성 논쟁에서 잘 드러난다. (갈1:11-2:14) 왜냐하면 바울은 육신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체험을 통해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에서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열두 사도들 및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 복음의 증인으로 그에게 불리움을 받은 자에게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미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교회가 형성되면서 사도성의 개념은 주로 예수의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권을 계승한 세대들(그 지도권의 계승으로 권위를 합법화하려는 자들)에게로 제한되어져 이해되어왔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가톨릭교회에서 사도적 계승의 신화가 생기게 됨으로써, 교황제도를 비롯한 성직자 계급질서가 확립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직 남성에게만 사도성을 부여함으로써 가톨릭교회를 정당화하는 개념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린이-청소년교회에서 사도성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적어도 개신교적 전통에서 볼 때, 사도성은 ‘만인사제설’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도성은 모든 신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또 그것을 위해 ‘카리스마’(은사)를 받은 것을 의미할 때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까 싶다.²⁴⁾ 사실 바울의 사도성 주장에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둔다면, 지금까지 주로 ‘사도성’을 교회의 치리와 관련된 보상과 징벌이라는 법적 모델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사도성을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과의 연대성 및 하나님의 카리스마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도성을 추구하는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사도성에 대한 교회법적 모델을 지양하고, 오히려 예수의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활동에 사도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교회의 사도성은 어린이-청소년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도들의 모범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한 모든 은사적인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살핀 네 가지 교회의 전통적인 표지는 가톨릭교회가 주로 교회의 표지로

24) 이형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20세기 주요 신학의 종말론적 교회론』, 72-73쪽.

써 사용하던 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위의 표지를 개신교에서도 결코 부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루터와 칼빈은 위의 네 가지 표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대신에 그 네 가지 표지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²⁵⁾ 예컨대,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성도들)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하면서, 교회를 성서에 근거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보고, 그것을 일컬어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로 정의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세례와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참 표지라고 주장하였다.²⁶⁾ 그리고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 이외에도, 열쇠의 힘(죄를 심판하고 용서하는 힘), 교역, 공중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체화된 그리스도의 생활 등 일곱 가지를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표지로 설명하였다. 결국 개신교회는 전통적인 네 가지 교회의 표지 이외에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의 바른 집행 등을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확대하면서 교회의 이해의 지평을 보다 넓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루터가 교회를 ‘성도의 교제’로 정의하면서,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한 점이다. 이것은 비록 후에 칼빈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발전하였지만, 지금까지 개신교의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 즉 루터에게서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며, 이들은 하나님께서만이 누가 선택되었는가를 아시는 것처럼 “숨어있으며”, “불가시적 존재”로 이해되었다.²⁷⁾ 이것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른 것으로써, 어거스틴은 “선택된 자들의 불가시적 교회”와 “성도와 죄인이 섞여있는 보이는 교회”를 구분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두 이름을 가지고 두 교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영적이고 내적 기독교 왕국이라 부를 수 있는 교회로써 자연적이고, 본질적이며 참 하나인 교회이다. 다른 하나는 외적 기독교 왕국으로 불리는 인간이 만든 교회이다.”²⁸⁾

이러한 루터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은 개신교회의 교회 원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존재 또는 성도의 초역사적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지위를 얻기 때문이다. 특히 루터는 이와 같은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우세성을 인정함으로써, 가시적 교회에 대한 비판적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달리말해 개신교의 원리는 바로 비가시적 교회에 근거하여 가시적 교회의 제도나 교리 그리고 실천에 대해 철저한 비판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개신교회의 원리으로써, 소위 불의에 ‘저항하는 교회’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개신교회의 비판정신은 자유의 정신으로써, 틸리히(Paul Tillich)는 후에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소개해 주고 있다.

25) 손원영, 『테오프라시스 교회론』, 181-183쪽 참조.

26) Jay, *The Church*, p. 162.

27) 이형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163쪽.

28) Martin Luther, “The Papacy at Rome,” *Works of M. Luther*, vol. 1, 361;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214쪽 재인용.

“개신교 원리는 상대적인 실재를 절대화시키려는 일부 주장에 대한 항거이다. 심지어 그 주장이 개신교 교회에 의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원리는 유한하거나 제한된 것이 사고를 하거나 행위를 하는 데 무조건적인 지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한 감시자이다. 그 원리는 종교적인 자만심, 교회의 교만, 세속적인 자기만족,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의한 파괴적인 결과들을 심판하는 예언자적인 재판관이다.”²⁹⁾

결국 개신교회는 성서에 근거한 교회의 이해(하나님의 말씀, 성례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의 교제 등)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초대교회로부터 강조해온 교회의 지표(일치성, 보편성, 기록성, 사도성)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다만 문제는 가톨릭교회가 지나치게 교회의 고전적인 지표들을 보이는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개신교회는 그러한 가톨릭적 견해에 저항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원리로 하여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nda et semper reformanda*)라는 개혁과 자유의 이념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원리에 따라 보이는 교회는 끊임없이 비판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신교의 저항의 원리이자, 동시에 개혁과 자유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개신교 내의 어린이-청소년교회도 개신교의 자유의 원리를 준거로 하여 끊임없이 수정되고 개혁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V. 어린이-청소년교회의 교회론적 새 방향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볼 때, 현재 한국교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와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그 변화와 위기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 신자의 수가 줄어든다가 혹은 교회의 윤리성 상실로 인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더 냉랭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는 과거의 교회론을 비롯한 전통적 신앙관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격차(gap) 내지 새로운 패러다임에의 부적응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것은 비단 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써, 주일학교가 어린이-청소년교회로 새롭게 형성될 때,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여기에서 앞서 살핀 ‘성서적 교회론’ 및 ‘전통적 교회론의 네 가지 지표’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포스트모던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어린이-청소년교회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29) Paul Tillich, “The Protestant Principle and the Proletarian Situation,” *The Protestant Era*, trans. by James Luther Ada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 163.

첫째,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약자와 연대하는 소위 ‘해방적 교회’(liberating church)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위 해방신학적 전통에서 강조하는 해방적 교회론으로써, 어린이-청소년교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은 가난한 자에 대한 편애적 사랑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³⁰⁾ 예수께서는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소외받는 가난한 자, 병자, 이방인, 그리고 여성 등과 깊은 연대감을 가졌다. 이러한 약자에 대한 예수의 연대감은 해방신학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편애적 사랑”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연대감’(solidarity)과 ‘가난한 자에 대한 편애적 사랑’의 개념은 해방적 교회론에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해방적 교회로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한국사회에서 현재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을 “긍정적 차별화”(positive discrimination)³¹⁾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기자본주의의 상황에서 소외받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차별화하여 그들과 연대하는 일은 어린이-청소년교회가 해방적 교회를 지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에큐메니칼 교회’(ecumenical church)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극심한 교회의 분열 및 배타적인 선교관에 따른 파편화된 교회의 재생산의 문제이다. 즉 개신교와 가톨릭교회 그리고 정교회 사이의 교회 일치의 노력은 20세기에 시작된 WCC의 활동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로 성과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러한 교회일치의 노력은 신학자들 간의 학문적 논의의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여전히 현장의 교회에서는 교회일치보다는 배타적인 신앙관과 교회성장을 위해 교회 간의 경쟁으로 교회 분열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어가는 실정이다. 특히 상당수의 한국교회는 한국의 전통 문화 뿐만 아니라 유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의 이웃종교에 대하여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복주의적 선교관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에큐메니칼 교회를 지향함으로써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간의 교회일치를 추구하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웃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배움의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영성적 교회(spiritual church)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영성적’이라는 의미는 최근 ‘영성학’에서 강조하는 ‘영성’(spirituality)을 추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물론 현대 영성학에서 논의하는 영성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학계에서는 영성의 개념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30) James B. Nickoloff, *Gustavo Gutierrez: Essential Writings* (New York: Orbis Books, 1996), chap. 2 참조.

31) “긍정적 차별화”는 일종의 박애주의적 평등해석으로써,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개념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ee-Chun Kang,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deas and Politics in England, 1900-1970* (Seoul: Se Kyung Sa, 1986), pp. 230-236.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생태계, 그리고 인간과 사회 사이의 통합적인 관계성을 함축하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우니(Michael Downey)의 영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시사적이다. 그는 영성이란 근대성 이후 파편화(fragmentation)된 하나님-인간-세계 사이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기독교적 삶 자체”³²⁾라고 정의하였다. 필자도 현대영성신학적 측면에서 재해석된 영성의 의미로써 “타자성, 관계성, 성례전성, 프락시스, 통전성”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³³⁾ 따라서 이러한 영성을 지향하는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영성지도(spiritual direction), 기도(prayer), 영적식별(spiritual discernment) 등의 영성적 실천이 교회에서 수행되어 파편화를 극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온전한 통전성의 삶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교회의 목회자는 ‘영성지도자’(spiritual director)로서의 자아정체감을 갖고 교육목회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영성수행공동체’로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성례전적 교회’(sacramental church)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성례전적 교회란 초대교회 이래 현재까지 모든 교회들이 강조하는 ‘성례전’을 존중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루터나 칼빈도 강조하였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될 때” 참 교회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신교적 교회론의 토대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 사이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매우 심각하였다. 특히 성례전예배의 참여는 성인들만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례전에서 거의 배제된 채 그 이외의 교회생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은 성만찬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성례전적 교회의 회복을 위해 어린이-청소년교회는 가톨릭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시행되었던 ‘세례-입교-성만찬의 통전적 일치’의 회복을 강조하며 개발한 ‘가입의 성례전’(sacrament of initiation: baptism, confirmation, eucharist)으로 알려진 ‘RCIA’(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례전적 교회로서 어린이-청소년교회란 모이는 교회로서의 성례전적 예배의 회복과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성례전적 삶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VI. 맺는 말

지난 200 여년 동안 개신교 종교교육의 센터 역할을 하던 주일학교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그것은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로, 그리고 다시 교회학교에서 주일교회학교로 변화

32) Michael Downey,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Mahwah, NJ: Paulist Press, 1997), p. 45.

33) 손원영, 『영성과 교육』(서울: 한들출판사, 2004), 제1장 참조.

되었던 과거의 학교형 패러다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린이-청소년교회’에로의 변화이다. 그것은 주일학교가 학교형 패러다임이었다고 한다면, 어린이-청소년교회는 교육목회에 기반을 둔 교회형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린이-청소년교회가 명실공히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회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함축해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것은 성서적 토대와 전통적인 교회의 표지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국교회가 서 있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성서적 기초와 함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근거하여 “하나요(one), 거룩하고(holy), 보편적이며(catholic), 사도적인(apostolic) 교회”를 지향하는 정통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맥락에서 어린이-청소년교회가 해방적 교회, 에큐메니칼 교회, 영성적 교회, 그리고 성례전적 교회를 추구할 때, 어린이-청소년교회는 한국교회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의미있는 교회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택 · 황병준 · 김현숙 · 박상진.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 김도일.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교육 모델.”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2.
- 김종준. “주일학교 교육의 진단.”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회 제37차 학술세미나, 2004.5.24).
- _____. 『나는 유년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었다』. 서울: 규장, 2000.
- 박상진. “한국 교회학교의 위기분석과 그 대책.” 『2004 “총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해” 교육 지도자대회』(자료집, 2004.2.26)
- 세계교회협의회회역음. 『세계교회가 고백해야 할 하나의 신앙고백』. 이형기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손원영. 『영성과 교육』.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_____. “어린이교회로서의 주일교회학교.”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_____. 『테오프락시스 교회론』. 서울: 동연출판사, 2011.
- 은준관. “어린이교회 세우기란?-주일교회학교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며” (2001년 어린이교회 새로 세우기 운동 강의원고)
- _____. 『신학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 이형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20세기 주요 신학의 종말론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Brubacher, J. S.,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1966), 『교육사: 교육문제변천사』. 이원호역. 서울: 문음사, 1990.
- Downey, M.,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Mahwah, NJ: Paulist Press, 1997.
- Groome, T. H.,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 Pastoral Ministry*,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1.
- Harmless, J. W., “Augustine and Catechumenate: A Catechetic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Boston College, 1990)
- Harris, M.,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Knox Press, 1989.
- Hodgson, P. C., *Revisioning the Church: Ecclesial Freedom in the New Paradigm*, 박근원 역, 『교회론의 새 지평』. 서울: 진흥, 1996.
- Jay, E. G., *The Church: Its Changing Image through Twenty Centuries*, vol. 1,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 Jutila, C., *Leadership Essentials for Children's Ministry: Passion, Attitude, Teamwork, Honor*, Loveland, CO: Group Publishing, Inc., 2001.
- Kang, H. C.,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deas and Politics in England, 1900-1970*, Seoul: Se Kyung Sa, 1986.
- Küng, H., *Die Kirche* (1967), 정지련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Lynn, R. W. & Wright, E., *The Big Little School: Two Hundreds Years of the Sunday*

- School*,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0.
- Moore, M. E., *Education for Continuity and Change: A New Model for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Abingdon Press, 1983.
- _____, *Covenant & Call: Mission of the Future Church*, Discipleship Resources, 2003.
- Nelson, C. E., *Where Faith Begins*, 『신앙교육의 터전』. 박원호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Nickoloff, J. B., *Gustavo Gutierrez: Essential Writings*, New York: Orbis Books, 1996.
- Osmer, R. R., *The Teaching Ministry of Congrega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Pazmino, R. W.,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hristian Education: An Evange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1992.
- Schweizer, E.,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 Seymour, J. L., *From Sunday School to Church School: Continuities in Protestant Church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860-1929*, Lanham, New York,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 Stevens, R. P., *The Abolition of the Laity*, Cumbria, UK: Paternoster Press, 1999.
- Tillich, P., "The Protestant Principle and the Proletarian Situation," *The Protestant Era*, trans. by James Luther Ada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Westerhoff III, J.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he 3rd Revised ed. New York: Morehouse Publishing, 2012.

원고접수일: 2014년 1월 14일 심사일: 2014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17일
연구자소개: 손원영

- ① 전공: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 ② 관심영역: 영성문화교육, 예술목회
- ③ 주요논저: 손원영. 『영성과 교육』. 서울: 한들출판사, 2004.
_____.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_____. 『한국문화와 영성의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_____. 『새시대 새 포도주: 새로운 교회교육과 학교 종교교육』.
서울: kmc, 2011. 외 다수

④ E-mail: sohnwo@gmail.com

Abstract

A Study on Ecclesiological Meanings for Establishing Children-Youth Church

Sohn, Wonyoung

Professor,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some ecclesiological meanings for establishing children-youth church in terms of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In fact, since 1780 in England, Sunday school has been changed the name from Sunday school into church school and Sunday church school in terms of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s. In details, recently Sunday school is significantly changing from “schooling paradigm” into “*ecclesia* paradigm” on the basis of theory of teaching ministry. Thus, that is why this article looks for some ecclesiological meanings for establishing “children-youth church.” First of all, this paper tries to show biblical meanings of children-youth church followings, that is, “God’s people,” “body of Christ,” “koinonia of faith, hope and love,” and “creature of Holy Spirit.” Second, children-youth church have to establish orthodoxically theological architecture on the basis of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381), which is called by “church is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Third, in order to overcome current problems facing Korean churches, children-youth church in Korea also needs to be considered theological directions in future, that is, ‘liberating church’ by theologies of liberation, ‘ecumenical church’ by ecumenical dialogue among churches including inter-faith dialogue, ‘spiritual church’ by theology of spirituality, and ‘sacramental church’ by restoring sacramental worship at church as well as sacramental life in daily life.

Key words: Sunday School, Church School, Sunday Church School, Schooling Paradigm, Ecclesia Paradigm, Teaching Ministry, Ecclesiology, Child-Youth Church, 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 Korean Churches